

전문신문협회보

제342호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代. (02)334-7251 2018년 2월 27일 월간

한국전문신문협회, 제54차 정기총회 개최



제54차 정기총회에서 이덕수 회장이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있다.



제54차 정기총회에서 양기방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2월 27일, 협회 사옥 건물 내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회의실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이덕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하며 밝혔던 회관건립 사업, 전문신문 진흥법 추진, 정부 정책 자금 지원, 미디어랩 사업, 회원 증강 노력 등의 공약을 되짚었다. 더불어 "회장으로서 마지막 총회를 맞이하여 기분이 남다르다"라며 "그동안 물심양면 도와주신 임원진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함께 '2017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에 대한 안건과 '제28대 회장 선출'을 진행했다.

감사보고에서 양기방 감사는 재무·회계와 관련하여 "회비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회비 미납금이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권고했다"라며 "기타 수입에서는 한·일 합동연수회 행사를 준비에 따른 참가비로 인해 수입이 크게 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협회 사업 업무 관련 "기존 연례행사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 했으나, 갈수록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 안건으로 상정시킨 '2017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음으로 제27대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제28대 회장 선출'에 대한 투표가 이어졌다. 이날 후보로는 회원사의 추천으로 코리아슈핑가제트 김명호 발행인과 가스신문 양영근 발행인이 출마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두 후보자가 자진사퇴 함에 따라 협회는 빠른 시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공식이 된 제28대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진숙 기자 kosna92@naver.com

2017·2018년도 결산·예산(안) 및 정기총회 일정 확정

제212차 정기이사회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이덕수)는 지난 2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1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제53차 정기총회 관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및 수지예산(안) 자료를 검토하며 회비 미수금과 회수 여부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협회 사무국은 해당 회원사에 납부 요청을 독려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를 듣고 김명호 부회장은 "장기 미납 하는데 각 회원사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라며 "사무국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진이 제54차 정기총회 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이덕수 회장은 "현직 회장으로서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라며 "임기 동안 임원진을 비롯한 많은 회원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 이덕수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추진해 온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진행경과와 '미디어랩 사업' 결과를 설명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진 의결사항에 대해 임원진은 '2017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과 '2018년도 사업계획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제28대 회장·감사 및 임원선출 관련'에 대해 협회 사무국은 회장 후보자 추천 접수 현황에 대해 코리아슈핑가제트 김명호 발행인과 가스신문 양영근 발행인이 추천되어 접수요건이 충족됐음을 설명했다. 이어 임원진은 오는 2월 27일 오전 11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에 동의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1월 24일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제28대 회장 후보자 추천 접수를 진행했다.

/이진숙 기자 kosna92@naver.com

한국전문신문협회 신규회원 가입안내

- ※가입자격: 국내 주간전문신문 발행인 또는 발행법인의 대표이사
- ※가입절차: 회원 입회원서, 발행인 카드, 회원사 카드(별첨 양식) 및 정기간행물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입회비와 함께 협회 사무국으로 신청(온라인 입금 가능)
- ※회비내역: 입회비 1,000,000원 / 월회비 90,000원
- ※입금구좌: 국민은행 009-01-1135-182, 신한은행 100-003-283205(예금주: 한국전문신문협회)

<주요 사업>

국제교류, 경영인세미나, 기자연수, 전문신문편람 및 협회보 제작,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정부포상, 한국전문신문상) 등

※문의: 한국전문신문협회 사무국 ☎ 02-334-7251~2

전문언론계의 유일한 참고자료 '2018 전문신문편람'

'2018 전문신문편람'은 각 분야별 전문신문 현황을 수록한 전문언론계의 참고자료입니다.

■주요 내용

- △회원사 성격별 분류
- △협회 회원사 소개
- △한국전문신문협회 연혁·정관·운영규정
- △언론자율정화에 관한 결의사항
- △기자증 발급에 대한 결의사항
- △정부훈장 역대수상자
- △한국전문신문상 역대수상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가 격 : 15,000원
구매처: 한국전문신문협회
문 의 ☎ 02-334-7251~2

한국전문신문협회

협회 위상 제고 · 재정마련 해소방안 마련 강조

정기감사 실시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이덕수)에서 지난 2월 9일 협회 사무실에서 양기방 감사(한국건설신문)와 이관치 감사(한국약국신문)의 진행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들은 이덕수 회장을 비롯한 협회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활동내역을 근거로 사업부문과 회계 · 재정부문으로 나누어 협회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이관치 감사는 협회 회비 장비 미납 회원사 현황을 확인한 후 원활한 회비 납부 독려와 회원간의 의사소통 활성화 방안 마련에 더욱 전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월 9일, 협회 회의실에서 양기방 감사와 이관치 감사가 2017년 사업실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자료를 보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을 당부했다.

이어 양기방 감사는 신문법 개정안 진행 경과와 함께 정부 지원금 축소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문신문의 위상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행한 감사에 관한 구체적 의견은 오는 '제54차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고, 최종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진숙 기자 kosna92@naver.com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한시가 급하다”

중소기업뉴스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로부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지권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뉴스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게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면서 “자영업 ·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무대에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서 소상공인들과 경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계가 통상마찰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대하지만, 국민 절반이 법제화에 찬성하는 등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을 빛낸 인물’ 6개 부문 선정

장업신문

장업신문(발행인 이관치)에서 2017년 국내 화장품 · 뷰티산업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것은 물론 뉴스메이커의 역할을 했던 인물을 평가해 시상하는 '2017년을 빛낸 인물'을 경영, 유통, OEM, 소재, 글로벌, 특별 등의 6개 부문에서 선정했다.

김중규 장업신문 대표이사는 “2017년을 빛낸 인물 시상은 장업신문이 2003년부터 각 부문 최선의 실적&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

가해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라며 “2017년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우리나라 화장품 · 뷰티업계가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포스트 차이나 시장 발굴을 위해 노력하며 수출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업계가 슬기롭게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해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문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2017년을 빛낸 인물에 선정된 여러분이 2017년 국내 화장품 · 뷰티산업의 발전을 이끈 선도적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화장품 · 뷰티산업이 해외시장에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2017년을 빛낸 인물’에 선정된 6인은 △경영부문 일진코스메틱 유승우 사장 △유통부문 뷰티엔누리 임종열 대표이사 △OEM부문 리봄 화장품(주) 서중우 대표이사 △소재부문 (주)더마랩 김용수 대표이사 △글로벌부문 씨케이앤비 배기혁 대표이사 △특별부문 (주)서울메세인 터내셔널 박병호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회 원 사 개 편

■건설타임즈

홈페이지 개편 안내

건설타임즈(발행인 이현규)가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나섰다. 새롭게 선보이는 홈페이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언론 시장을 반영하여 진행했다.



각 카테고리는 △건설(정책 · 제도, 업계소식) △부동산(종합뉴스, 시세 · 시황, 분양, 재개발 · 재건축) △입 · 낙찰(공사계약, 입찰제도) △교통 · 환경(철도 · 도로 · 항공, 환경) △에너지 · 플랜트(전력 · 석유 · 가스) △자재 · 신기술 등으로 분류했다. 개편한 홈페이지는 www.constimes.co.kr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농축유통신문

홈페이지 개편 안내

농축유통신문(발행인 강신영)이 새로운 홈페이지로 독자들을 맞이할 준비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실시간 뉴스를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각 카테고리는 △농업(농정, 산림, 친환경, 원예특작, 협동조합, 비료 · 종자 · 농기계, 농업기술) △축산(축산정책, 축산물 · 유통, 한우, 돼지, 낙농, 가금 · 특수가축, 사료 · 동물약품, 업계동향) △유통(유통정책, 농업유통, 식품 · 수출입, 도 · 소매유통) △오피니언(사회이슈, 데스크단상, 기고, 사발통문, 칼럼) 등으로 분류했다.

개편한 홈페이지는 www.amnews.co.kr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법무법인 ‘지평’이 전문건설과 함께합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발행인 김영운)이 대한민국 유수의 법무법인인 ‘지평’의 건설부동산그룹과 함께 독자들의 법률 궁금증 해소 및 법적 대응전략 강화에 나선다.

이에 대한전문건설신문은 칼럼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 이야기’를 연재하며,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직접 답하는 ‘일대일 상담’ 형식을 통해 다양한 법률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함께 참여하는 변호사는 △정원 변호사(wjeong@jipyong.com / 02-6200-1750) △이해원 변호사(hwlee@jipyong.com / 02-6200-1847) △박보영 변호사(bypark@jipyong.com / 02-6200-1843) △백종현 변호사(jhback@jipyong.com / 02-6200-1834) △신재형 변호사(jhshin@jipyong.com / 02-6200-1950) 등이다.



한국세무사회 제56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6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세무사신문

세무사신문(발행인 이창규)을 발행하는 한국세무사회가 서초동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 창립 제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제6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및 선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창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창립된 지 56년째를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다”면서 “세무사회가 명실상부한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56년 동안 선배 회원들께서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제도 발전과 세무사회 위상제고에 헌신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회 56년 숙원을 성취해 세무사자격은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주는

2종 자격사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독립된 전문자격사로서 권위와 명예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에 이어 제6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올해 조세학술상 공로상은 김광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수상했다.

김 위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직책을 수행하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제도 및 국제행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조세학술상 논문상에는 ‘소득공제 대상인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지출행태의 변화 분석’을 쓴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와 ‘횡령죄와 배임죄의 세법상 취급에 대한 소고’를 공저한 김지숙 대구지검 검사 · 법무법인 평안 권형기 변호사가 공동 수상했다.

유태우 발행인 ‘대장질환·요통 등 예방 치유방법’ 특강 실시

보건신문

보건신문 유태우 발행인이 충청남도·대전시 수지침사 인증 연수 교육에서 ‘대장질환·요통 등 예방 치유방법’ 특강을 진행했다.

천안시 신부문화회관 3층에서 진행한 이번 연수에는 300여명의 수지침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서 유태우 발행인이 ‘대장질환의 예방과 조절하는 치방연구’, ‘디스크 요통과 척추관협착증의 예방과 치유방법’, ‘신형 기마크봉S와 천금봉 등의 해설’, 김기중 학술



위원이 ‘뇌혈관 질환의 서급요법 예방과 낮는 방법’, ‘고혈압의 특별 관리법’ 등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장모(70대·남) 수지침사는 “수지침사로서 실력을 연마하고 건강

관리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된 귀중한 교육 시간이었다”면서 “올해도 이웃들에게 서급요법 지식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제26기 가스신문 명예기자단 발대식

가스신문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의 26기 신입 명예기자로 6명이 임명되면서 전국에서 총 100명이 지역 리포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한국가스신문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26기 신입 명예기자 발대식에는 가스신문 양영근 발행인, 김정언 명예기자 단장, 신입 명예기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양영근 발행인은 신입 명예기자로 임명된 △이경철(화영상사 차장) △손호성(신광기업 이사) △한용훈(E1 진주오렌지 충전소 대표) △하태형(대림기공 팀장) △김진남(서귀포충전소 소장) △허희문(린나이 순천대리점 대표) 등 6명에게 가스신문 명예기자 위촉장을 전달했다.

명예기자 결의문을 낭독한 이경철 신입 명예기자는 “독자와 호흡하는 신문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스신문 명예기자임을 자각하고 지역의 리포터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양영근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가스신문은 전문 언론의 기능은 물론 가스코리아 전시회, 가스총람 발간, 가스지도 제작 등을 통해 가스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명예기자 일원이 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정언 명예기자 단장은 “가스신문 명예기자 슬로건이 관심·참여·사랑과 함께 화합·소통인데 신입 명예기자들과 더 좋은 인연을 맺길 희망한다”며 “전체 및 지역모임에 적극 참석해 유대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대식 후 신입 명예기자들은 가스신문 박귀철 부사장으로부터 명예기자의 역할과 올해 행사 등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제37대 간협 회장에 신경림 교수 당선

간호사신문

간호사신문을 발행하는 대한간호협회 제37대 회장으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제1부회장은 곽윤희 전 병원간호사회장, 제2부회장은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장이 확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2년(2018~2019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갈 임원진을 선출했다. 임원선거는 21일 오후에 실시됐다.

개표결과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당선됐으며, 러닝메이트로 나선 곽윤희 전 병원간호사회



장이 제1부회장으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장이 제2부회장으로 확정됐다.

당연직 부회장으로는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확정됐다. 대한간호협회 정관에 따르면 당연직 부회장은 간호협회 회원 수의 25%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된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장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병원간호사회는 3월 8일 열리는 총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에 최혁용·방대건 당선

한의신문

한의신문을 발행하는 대한한 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기호 2번 최혁용, 방대건 후보가 당선됐다.

최혁용 회장 당선인은 “지난 10년간 3번에 걸쳐 협회장 선거에 뛰어들어 매번 같은 정책을 주장해오면서 처음에는 누구의 관심도 얻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의사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누구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음으로써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매 순간 순간마다 회원들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혀 회원과의 소통을 전제로한 회무추진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최혁용, 방대건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 ‘힘이 되는 첫 번째 협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 있는 리더를 뽑아줄 것을 호소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 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을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국전문신문협회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주간전문신문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도서관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규정에 따라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으로 영구 보전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 납본대상자료 : 도서, 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대학 및 학회지, 정부간행물) 등
- ◆ 제출시기 및 부수 :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각 2부씩
- ◆ 제출처 : 한국전문신문협회 납본센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사)한국전문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임을 받아 납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니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이 어려우신 신문사에서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을 대행해 드립니다.

우편 및 방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407호
문의 ☎ 02-334-7251~2

밀교신문 창간 45주년 신년특집 발행인 인터뷰

수행·교화는 수행자의 본분이며 종교의 본질… 자주적인 신행 실천할 것

—제30대 통리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소회를 밝혀주십시오.

“30대 집행부에서 시작된 일도 있고, 29대에 진행해 오던 사업들을 이어가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난 집행부에서 이어져 왔던 오래된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 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100%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80% 이상은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술년 새해 시무식에서 수행과 교화,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수행과 포교, 교화는 수행자의 본분이며 종교의 본질입니다. 본분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사실 부족하다 보니 강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본분에 최선을 다 하자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에 있어서 중점을 둘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각종의 수행은 진각종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각종은 자주적인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각종은 승속이 동행하는 수행입니다. 자주적인 신행이 되지 아니하면 깨달음도 없고, 실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바탕이 자주적인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기조로 ‘공(公)의 세계, 만다라 세계 구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단체에 중점을 둔 사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면 국가, 종도들의 경우 종단과 같이 단체에 의미를 둔 마음으로 살아가야 큰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교로 사적인 마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단체가 발전하려면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사적이 아니라, 단체를 생각하는 마음인 공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심은 미지의 세계, 즉 미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꿈이나, 서원,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만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을 품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 마음을 가져야 만이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주요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진각복지재단과 연계하여 교구마다 ‘진각봉사단’을 발족하고 △포교봉사단 △구호봉사단 △자비봉사단으로 나눠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를 통해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통리원과 교육원 등에서 제반 규정을 완성해 일선 심인당이나 교구에서도 규정을 통해 제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추복전 건립사업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苦) 가운데 하나가 죽음입니다. 종단적으로는 이 죽음에 추선 추복 불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복전을 진각문화전승원에 건립할 예정으로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성 정새(김봉갑) 발행인

—종단 창종 70년을 넘어 진각 100년의 희망을 열어가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 시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되었지만, 열반 후에는 의지할 곳이 없으니 결집을 통해 불교가 이제껏 이어왔습니다. 진각종도 마찬가지로 종단을 창종하신 회당대종사의 의지, 원력, 사상, 이념을 결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조님이 계실 때는 종조님의 뜻을 따르면 되었지만 이제 3세대로 넘어오면서 종조님을 직접 뵈고 법을 이어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문자이고, 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교리, 의식, 의제, 교법들을 결집하는 것이 30대 집행부의 숙제입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야 종교의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종단 구성원과 신교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물질문명이 발달하는 연속성을 받아 소화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 물질문명의 발달은 재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조님께서 말씀하신 ‘물질이원진리’처럼 물질이 발달하면 정신세계가 따라서 발달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공의 세계를 통해 공심을 발달시킨다면 물질세계가 발달하더라도 사람이 이를 따라갈 수 있고,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힘들어집니다.”

—끝으로 종교지도자로서 신교도와 국민에게 당부의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바탕을 바로 두면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옥토가 되어야 나무가 잘 자라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안락하고 청정하면 인생도 안락하고 청정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이 파폐하고 어두우면 인생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도라면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마음 수행을 통해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 내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창간 30주년 기획 특집

‘최초’의 역사 써내려간 30년…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새로운 변화 거듭

[편집자주] 기독교언론의 역사는 곧 한국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97년 첫 기독교언론이 창간된 이후 120년 세월을 지나는 동안 종류만 수십 개에 이르는 언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초창기 기독교언론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고 계몽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100여개에 이르는 언론은 교회 분열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적극적 연합을 이룰 때는 신문의 통합도 이뤄졌고, 교회가 분열될 때는 저마다 분열의 명분을 안고 신문을 창간하곤 했다. 이런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연합’의 사명을 안고 초교파 정론지로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언론이 바로 ‘기독교연합신문’이다. 1988년 2월 1일 창간 후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연합신문은 한국교회의 현대사와 함께 호흡했고, 교회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다. 지난 30년간 걸어온 기독교연합신문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언론 자유의 열기를 따라 1988년 2월 1일 창간된 ‘기독교연합신문’은 복음전파를 목표로 하면서 평신도의 신앙과 생활을 선도하는 신문을 천명했다. 본지의 창간 목적은 ‘정론과 선교’에 있다. 특히 한국사회와 세계를 향한 선교적 열망을 담아 문서선교의 한 축인 ‘기독교언론’ 창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언론인보다 교육자로 더 잘 알려진 장종현 목사가 신문을 창간한 것은 ‘선교’라는 큰 꿈의 일환이다. 선교사를 꿈꿨던 장종현 목사의 사명이 교육(학교)과 목회(교단), 그리고 선교(미디어)로 확장된 것이다.

10만 부 발행, 시내 가판 판매 기록

기독교연합신문은 교계신문 역사에 ‘최초’의 기록을 여러 개 남긴 선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특히 창간 후 복음전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시내 가판 판매와 10만부 발행의 공격적 경영은 지금도 감히 시도할 수 없는 과감한 결정이었다.

1987년 언론 자유화는 이단종파들도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당시 기독교 언론들은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다. 세계일보보다 1년 앞서 창간된 기독교연합신문은 통일교와 이단의 문제를 교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신문의 존재를 알리면서 일간지에 버금가는 주간신문의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창간 후 6개월 만인 1988년 8월 14일에는 10만부를 발행하며 길거리 신문 판매대에 기독교연합신문을 배치했다.

교계신문 최초 인터넷 신문 창간

첫 인터넷 서비스의 시작은 1990년대 말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정용 컴퓨터의 보급이 시작됐다. 기독교연합신문은 1999년 2월 1일 홈페이지(www.ucn.co.kr)를 구축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기독교 전문 정보통신업체를 이용해 기사만 업데이트 하는 형식이었다. 이 서비스로 독자들은 집에서 신문을 기다리지 않고 PC 통신 접속으로 교계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신문을 선보인다. 2005년 1월 1일 ‘아이굿뉴스’(www.igoodnews.net)라는 이름으로 교계 신문 최초로 인터넷 신문을 창간하면서 시대를 앞서 나갔다. 종이신문은 기독교연합신문으로, 인터넷 신문은 ‘아이굿뉴스’로 각각 다른 제호를 사용하면서 투 트랙 미디어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신문-방송의 융합 ‘아이굿뉴스TV’ 개국

교계 오프라인 언론 중 최초로 인터넷 신문 ‘아이굿뉴스’를 창간한 데 이어 1년 후인 2006년에는 인터넷방송 ‘아이굿뉴스TV’를 개국하기에 이른다. 아이굿뉴스TV 개국과 함께 기독교연합신문은 ‘21세기 기독교언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을 선언한다.

아이굿뉴스 창간을 계기로 교계신문 최초로 ‘전국 신학생 설교대회’를 개최했고, ‘전국 찬양경연대회’를 실시했다.

2016년에는 한국교회 최초로 ‘신학대학원생의 의식과 사역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기독교연합신문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연중기획 ‘신학교육이 변해야 한국교회가 산다’를 총 35회 연재, 신학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는 한편, 연말 기자상을 휩쓸며 기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교단지로 변화와 도약의 시대 열다

초교파 신문으로 창간됐지만, 백석학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던 신문은 교단의 성장과 함께 교단지로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기독교연합신문의 교단 직영은 2002년 9월 총회에서 ‘1교회 1만원’ 의무구독 결의 이후 2014년 9월 정기총회에서 ‘1인 1만원 의무구독’ 결의를 재확인했으며, 2015년 9월 예장 대신과 백석 통합총회에서 ‘총회 직영’ 결의를 하면서 본격적인 교단지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처럼 변화와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기독교연합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언론으로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되, 언론의 가치와 사명은 복음의 본질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신문을 꿈꾼다. 창간 30주년을 기점으로 ‘교회를 살리는 신문’을 기치로 내걸고 세상이 쏟아내는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전하는 신문이 될 것을 다짐한다.



제 23회 “해사안전, 해상 무사고 기원”

‘바다의 날’ 마라톤

www.badamarathon.com

2018.5.26(토)

오전 8:00 출발 | 여의도 너른들판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주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운신문

후원: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재단, CJ대한통운,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EU, “회원국 정부가 가상화폐 가치 보장 못해” 유럽의회 합의

투기 진정세 이론 한국 정부는 “시키는대로만 하면 독려” 다른 뉘앙스

유럽연합(EU)이 가상통화업자와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를 회원국 감독당국에 등록하는 것을 법정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사법재판에 관한 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가 2015년 “가상통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가상통화는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전 세계 정부의 방향이 ‘강한 규제’를 예고했다.

자본시장연구원(KCMI) 배승욱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가상통화 규제 관련 EU자금세탁방지지침(안)의 주요내용’이라는 제하의 짧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19일 EU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EP), EU이사회(The European Council), EU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EC)는 제5차 EU자금세탁방지지침(안)에 가

상통화 등을 포함시키는데 합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135조 제1항에 명시된 면제 조항상 가상통화가 통화해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배연구원은 다만 “이 판결은 가상통화 관련 조세부문에 있어 판단한 것으로, 가상통화가 일반적으로 통화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P는 EC안의 내용중 가상통화 계정 보유자와 가상통화업자 등을 회원국 감독당국에 등록(registry)하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최종안에는 가상통화업자와 가상통화지갑제공업자를 등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U는 특히 이번 5차 지침안에서 가상통화의 정의에 “중앙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발행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회원국 누구도 가상화폐를 법정화폐(Legal Tender)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전 세계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에도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정부는 금융정책의 지구촌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유럽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경제현상인 가상화폐를 근본적으로 따지기보다는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초래한 현상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 개념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의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방침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충격에 빠진 뒤 투기분위기가 줄어들자 가상화폐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판단아래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가상화폐 실명제’ 이후 투기열풍이 사그라들었다고 판단하자 “정상거래 유도”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은행을 독려하겠다”라는 식으로 규태도를 완화했다.

기사제공: 국세신문(2월 21일)
이예름 기자freerumi@hotmail.com

‘개인정보보호 소홀’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과태료 1억4천만원

코인원·아피안 등 업체별 최고 2천500만원...숨방망이 처벌 논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가상화폐 거래소 8곳에 총 1억4천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업체별 과태료가 최고 2천500만원에 불과해 해킹과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8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사업자에 이런 제재를 부과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10일~1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곳의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서버 구조상 조사가 불가능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은 업체는 코인원과 아피안으로, 각각 2천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두 업체는 계좌번호 암호화 저장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1년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해 저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빗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를 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 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총 2천100만원이 부과됐다.

두나무는 개인정보보호 조치 위반에 이용자 동의 절차 철취를 어렵게 해 2천만원, 리플포유와 쉐렛은 각각 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두 업체는 1천만원씩이 부과됐다.

8개 업체 가운데 리플포유와 아피안은 해킹 사고로 사이트가 폐쇄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업체당 부과 액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가능한 최대 액수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가 업체 매출 규모에 등에 따른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업체가 이번에 처음 적발돼 과태료 기준액수가 1천만원으로 낮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디텍티브뉴스(2월 21일)
박상택 기자 lekffu1001@naver.com

새로 쓴 소득·법인세법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제8회 국무회의에서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1년부터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새로 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로 2016년 5월 폐기돼 그간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새로 쓴 소득세법은 지금까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하나의 장에서 규정하고 비과세·과세표준 계산 등 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것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편제를 재구성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대상·과세방법 등을 구분 규정했다.

또 수식 문구·괄호가 포함돼 주술관계가 복잡한 문장은 호나 목을 활용해 가능한 단문으로 서술하고, 임원·직원·조세조약·증권시장 등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열거순서를 변경했다.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납세자 수와 조문이 많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먼저 열거하고, 이에 맞춰 소득종류별로 비과세소득, 과세방법,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별도 규정한 것이다.

아울러 과세표준,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했다.

이밖에 포괄적인 준용규정은 조문의 해석을 불명확하게 하므로 준용이 필요한 개별조항에서 특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새로 쓴 법인세법은 우선 내국법인·외국법인 등 납세의무자별로 별도의 편을 구분하고 납세의무자의 과세대상소득·과세방법에 따라 장을 편제토록 했다. 지금은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등이 혼재돼 규정돼 있다.

또 가독성,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복잡하고 긴 조문은 단순화했다.

목적 규정을 신설해 법인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명

시하고, 시가·특수관계인·임원·직원 등 자주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했다. 익금과 수익, 손금과 손비의 의미와 범위를 재정비했으며, 적용비율, 세액계산방법 등을 표와 산식(算式)으로 표현토록 했다.

negative 형식으로 규정된 의제배당 조문은 positive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법과 시행령에 분산돼 다중부정 형태인 조문을 의제배당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만 열거하는 형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함께 규정돼 있던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종합과세·분리과세 체계로 구성하고 과세방법을 개관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한국세정신문(2월 20일)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대형 제약사 OTC 전략 엿봤더니, 올해도 ‘비타민 전쟁’

활성·고함량 콘셉트 제품 집중 육성...치열한 영업마케팅 벌어질 듯

국내 제약사의 ‘비타민 전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활성’, ‘고함량’이라는 콘셉트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

국내 대형 제약회사의 OTC 전략을 살펴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비타민 제품 육성을 천명하고 있다. 일반약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률을 그리며 선도하는 제품으로 비타민 제품만한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한양행은 OTC 대형 품목 육성이 기본 전략이다.

그 중 눈에 띄는 제품이 고함량 영양제 시장에서 1위 품목에 도전하는 메가트루. 지난해 활성 비타민 추세에 맞춰 새롭게 리뉴얼된 뼈곰씨엑티브도 영업집중 제품군으로 꼽힌다.

중근당도 올해 비타민 시장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활성비타민 벤포티아민100mg를 함유한 벤포벨이 그 주인공이다. 회사측은 펜잘과 모드시리즈로 다져온 약국 시장에서 벤포벨을 활성비타민 시장의 새 강자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녹십자도 혈액제제와 백신 회사 이미지 뒤 감춰진 알짜 비타민 제품을 차근차근 키우는 중이다.

지난해 대중광고 없이 비타민영양제 비맥스를 100억원 대 대형 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성공했다. 올해도 비맥스를 녹십자의 대표적 비타민 제품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함량 비타민 시장을 선도한 대웅제약도 빼놓을 수 없는 ‘비타민 전쟁’ 참전 제약사 중 하나다.

임팩타민은 과거 성장률에는 못미치지만 전년대비 10% 성장하며 고함량 비타민B 분야를 수성하고 있다. 올

해는 300억원을 목표로 라인업 확장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종합영양제 제품인 ‘나인나인’, ‘제텐비’로 주목 받고 있다.

나인나인은 국내 출시된 종합영양제 중 가장 많은 성분(28종)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이다. ‘활성비타민’ 제품인 제텐비 역시 육체피로와 신경피로 동시 해결이라는 콘셉트로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비타민 시장은 지난해와 큰 차이 없이 고함량, 활성화, 대형화 추세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시장을 놓고 치열한 영업전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기사제공: 약사공론(2월 19일)
정웅중 기자 |kpanews1@naver.com

대형 사립병원 의약품 납품 계약 연장 ‘왜?’

의약품 대금 결제법 시행으로 수백억원 현금 동원 부담감

의약품 입찰 도입해도 실익은 없어...

교육부 권고 사항으로 입찰 도입 시간 문제

의약품 입찰을 검토중에 있던 대형 사립병원들이 잇따라 납품 계약을 연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 순천향병원, 차병원, 건국대병원 등이 기존 의약품 납품 업체들과 짧게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연장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립병원들은 의약품 납품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 형태에서 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던 병원들로 잠시 의약품 납품 방식 전환에 대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양대병원은 구리병원이 작년에 입찰을 실시하면서 서울 본원도 빠른 시일내에 입찰을 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순천향병원도 3월경에 입찰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이들 사립병원들이 의약품 구매 방식을 입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교육부의 권고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병원이 교육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납품 방식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병원 경영 악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대금 결제법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들 사립병원들에게는 현금 유동성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으로서는 전혀 실익이 없는 입찰을 굳이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병원들은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10개월이 넘어가고 있어 6개월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양대병원의 경우 과거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18개월이었고 최근 15개월까지 축소했지만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으로 인해 수백억원의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매년 감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립병원들에게 의약품 입찰을 종용하고 있어 이들 사립병원들이 언제까지 수의 계약을 고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으로 인해 사립병원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찰을 도입해도 사립병원들에게는 실익이 없어 병원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교육부 권고 사항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의학신문(2월 21일)
김상일 기자 |k31@bosa.co.kr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전환 ‘코앞’

대상기관 전체 종합병원 확대, 참여신청 상시 가능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복지부가 7일부터 본 사업 대상기관을 상시 공모한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의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2016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지정된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며, 기존 입원료 외 별도수가가 책정된다.

별도수는 전문의수에 따라 1만5000원~4만3000원 수준이며, 환자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공고된 상시공모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의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시범사업 기간	16년 9월~17년 12월 (필요시 연장)	본 사업 전환 시까지 (17년 12월 기공고)
참여대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지정절차	사전 지정 후 전문의 채용	전문의 채용 시점부터 지정·운영
중복사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중복 불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중복 허용

모든 의료기관으로서, 지금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었던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또한 별도의 공모기간 없이 참여 신청을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지정 및 운영이 시작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병동은 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입원전담

전문의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순현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으로 재원기간 및 재입원을 감소 등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내 우리나라에서의 입원전담전문의 효과와 함께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사업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변경된 공모절차, 사업내용 및 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상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병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웹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사제공: 한국의약통신(2월 7일)
정지은 기자 |pharmacy@binews.co.kr

평창올림픽, 이제는 농촌여행지에서도 외국어로 소통

농식품부-농어촌공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한 통·번역기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우리 농촌 여행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강원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54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어 통·번역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체험마을 등 우리 농촌여행지에는 연간 약 20만명(2017년 기준)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언어 소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농촌여행지에서 보다 쉽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방문이 예상되는 주요 체험마을에 외국어 통·번역기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번역기 보급 대상 체험마을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지역 체험마을 중에서 외국인 여행객이 일정 인원 이상 방문하고 있는 54개 체험마을로, 마을당 2~5개씩 총 140여 개를 보급한다.

농식품부가 체험마을에 보급하는 외국어 번역기는 ‘지니톡 오프라인’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통·번역 어플리케이션인 ‘지니톡’의 오프라인 사용 가능 버전 제품이다.

통·번역이 가능한 언어는 총 4개로, 한국어를 비롯해 방한 외국인의 주요 사용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포함되며 음성 인식을 기반으로 스마트폰의 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해 통·번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해,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최봉순 농촌산업과장은 “통·번역기를 보급한 체험마을에 사용 매뉴얼과 함께 사용법 안내 교육을 실시해 체험마을 관계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이후에도 외국인 여행객을 농촌으로 적극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농업축산신문(2월 8일)
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

올해 습식유통 활성화 대폭 지원

aT, 운송비·습식물통 중점 기자재 비용의 50%

화훼유통 과정에서 절화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습식유통 활성화 사업이 올해 중점 지원된다. 그동안 농가들이 기피했던 습식유통이 화훼 고품질 판매, 유통을 위해 선결 활성화돼야 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사업센터(센터장 심정근)는 절화류 고품질 생산과 신선도 유지를 통해 소비자 신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코자 올해 화훼류 습식유통 사업 지원대상자를 확대 모집한다.

습식유통사업은 농가가 채화 단계에서부터 물올림을 하고 수명연장제 처리를 통해 청과의 쿨드 체인방식과 유사하게 출하한다. 이는 꽃의 유통기간을 늘려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일본 등 화훼선진국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통방식이다.



대상자는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생산단체 및 농가이며, 올해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되면 습식물통, 습식대차, 수명연장제 등 습식유통을 위한 기자재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경우에

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12일 1차 대상자들을 확정했다.

여기에, 습식유통으로 출하된 장미의 경우, 일반 건식으로 출하되는 장미대비 32%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공판장의 습식유통 출하물량은 45만4,000속으로 전년대비 6% 증가했지만 아직 전체물량의 10%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심정근 센터장은 “결국은 화훼농민들을 위한 것이 습식유통”이라며 “농가수취가격의 제고와 우수품질의 꽃 유통을 통해 국산 절화 소비활성화를 올해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원예산업신문(2월 12일)
류창기 기자 |hins610@chollian.net

국내 닭 4품종 8계통, 국제기구에 이름이 등재되다

우리 품종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닭 4품종 8계통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에프에이오(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닭 4계통, 지역적응품종인 코니쉬 2계통, 햄프셔 1계통, 로드아일랜드 1계통의 등재를 결정했다.

본래 외래종인 코니쉬, 햄프셔, 로드아일랜드 품종은 지역 농장에서 10세대 이상(19년) 육성해 온 자원으로 지역적응품종으로써 인정할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들 품종은 국립축산과학원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종축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토종닭 유전능력평가와 육종지원 사

업’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재래닭 4계통 가운데 3계통은 해당 농가에서 재래닭의 색상 복원을 위해 10세대 이상을 유지해오며 재래닭으로서의 고유성을 인정받아 등재 대상으로 결정됐다. 흑계 1계통은 빈약한 체형으로 상품성이 낮아 10여 년 이상 체형 위주로 선발해 세대를 갱신해온 닭이다.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은 전 세계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범지구적시스템이다. 지난해 에프에이오(FAO)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에서는 이 시스템을 식량동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위한 유일한 범지구적 정보공유 체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198개 나라 38축종 1만 5천 8계통의 정보가 등재돼 있으며, 우리나라 자원은 기존 15축종 99계통에 이번에 등재된 8계통을

포함해 총 107계통으로 늘었다.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성수 센터장은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의 주권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우리 품종을 인정받으면서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전문가들의 객관적 심의를 통해 유전자원으로서 가치를 부여한 만큼, 해당 자원의 시스템 등재로 우리 유전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에프에이오(FAO)는 각 나라별로 담당을 지정해 해당 나라의 품종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담당으로 지정돼 있고, 매년 등재를 위한 심의회를 열고 있다.

기사제공: 한국영농신문(2월 19일)
김찬래 기자 |kcl@youngnong.co.kr

월급 190만 원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기재부, 식당종업원도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월급 총액이 190만 원을 넘는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등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의결해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 생산직에 국한됐던 월 20만 원 한도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서비스 직종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5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의 비과세 대상은 기존 월정액 급여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높아졌다. 대상 직종도 기존 제조업 생산직에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으로 확대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축소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형평성



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통해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5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이 중 초과근로수당(월 20만원 한도)을 뺀 금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 원인 식당 종업원이 초과근로수당으로 20만 원(비과세)을 수령해 월 수령액이 총 200만 원이 되더라도 비과세인 2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만 월 보수로 인정돼 일자리안정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간동안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종업원 수가 30인을 초과해도 29인까지는 계속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에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면 지원이 종료되는 조건이었다.

영세사업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1곳당 3천~5천 원에서 6천~1만원으로 2배 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사제공: 식품외식경제(2월 12일)

윤선용 기자 | bluesman@foodbank.co.kr

1조 원대 ‘스틱커피’ 부활 조짐

인스턴트원두 등 값싸고 가성비 높아 인기 상승…유업계·프랜차이즈 가세

연 1조원대 국내 스틱(믹스) 커피시장이 무한경쟁으로 또다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스틱커피 시장을 주도해온 동서식품·남양유업·롯데네슬레코리아의 삼파전에 유업계, 커피 프랜차이즈 등도 합세하면서 경쟁의 소용돌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작년 농림축산식품부와 ATF가 발표한 커피류 마켓리포트에 따르면 스틱 커피 전체 시장 규모는 2014년 1조1585억 원에서 2016년 1조228억 원으로 11.7% 감소했다. 이는 커피믹스의 매출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소매점 매출액 기준 믹스커피는 2015년 9458억 6900만원에서 2016년 8453억 6700만원으로 하락한 반면 인스턴트 원두커피는 1674억 1300만원에서 1774억 71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스틱커피는 원두커피보다 저가라는 점과 소비자 접점을 강조한 마케팅 전략으로 인기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서식품은 기존 믹스커피 브랜드 ‘맥심’과 함께 원두커피의 인기에 인스턴트 원두커피 ‘카누’를 선보이고 있다. ‘카누’는 매년 성장세를 보이는데도 동서식품 전체 매출액 중 70%는 ‘맥심’에 의존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동서식품은 ‘카누’에 대해서는 광고모델인 공유

를 활용 시즌별 CF를 선보이고, ‘카누 아이스블렌드’ ‘카누 라떼’ 등 때에 맞는 신제품 출시로 매출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맥심’에 대해서도 김연아, 김우빈, 이나영, 정유미 등 모델들을 앞세운 스타 마케팅을 전개하는 동시에 모카챗방, 모카다방, 모카골드 팝업스토어를 선보이고, SNS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부르는 ‘맥심 아이스커피송’ 행사를 진행하는 등 소비자 접점 확대와 소통을 늘리고 2030세대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4년마다 ‘맥심 리스테이지’를 진행하면서 신제품과 품질, 디자인이 개선된 리뉴얼 제품들을 선보였다.

동서식품의 선전으로 전체 스틱커피 시장 규모도 3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남양유업과 네슬레 등 다른 제조업체들의 작년 커피믹스 매출도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업계와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프리미엄 스틱커피’를 내세워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일동후디스가 건강과 프리미엄을 앞세워 폴리페놀 함량을 높인 프리미엄 건강커피 ‘노블 스틱’ 3종을 출시하며 각종 시음행사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스타벅스의 ‘비아(VIA)’는 스타벅스의 프리미엄 원두를 사용한 고품격 미세분말 커피라는 슬로건으로 원두제품으로 구분 판매해 타사의 스틱커피와 차별화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인 이디야커피는 스틱원두커피 ‘비니스트’를 2014년 출시해 작년 1억 스틱 판매를 돌파했다. 출시 당해 1000만 스틱 판매 이후 매년 평균 100% 이상 판매가 늘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맛 품질을 개선하고 ‘아메리카노’ ‘다크’ ‘라떼’ 등 라인업을 확대해왔다.

앞으로 작년 4월 커피연구소 및 마케팅 접점으로 오픈한 ‘이디아랩’의 활용도를 높여 이디야의 스페셜티 커피와 원두를 선보이고, 연내 로스팅 공장을 신설해 OEM으로 받아오던 원두를 직접 로스팅, 비니스트 생산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가맹점과 유통업체에 대한 물류배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제공: 식품음료신문(2월 20일)

황서영 기자 | syhwang@thinkfood.co.kr

6만원에 파는 와인, 알고 보니 수입가격은 5천원

소비자원 “국내 판매가 인하 위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5000원선에 수입된 레드와인이 6만원대에 판매되고 화이트와인은 4000원대에 수입돼 4만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등 수입와인이 수입가보다 10배 내외의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와인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가격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돼 국내 판매가 인하 유도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수입와인 구매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선택 다양성 만

족도’가 7점 만점 기준 5.26점으로 가장 높았고, ‘품질 만족도’는 4.71점, ‘가격 만족도’는 4.69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주로 마시는 수입와인 원산지는 기존 칠레·프랑스·이탈리아·미국 등에서 호주·스페인 등으로 확대됐으며, 레드와인뿐만 아니라 화이트와인, 발포성 와인 등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인 용량과 포장 용기는 750ml 병 위주에서 소용량 파우치·컵·캔과 2ℓ 이상 대용량 용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은 1만원 이하부터 1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해 소비자 선택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입와인의 평균 수입가와 판매가 차이를 살펴본 결과, 레드와인은 평균 11.4배, 화이트와인은 평균 9.8배의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원은 수입가격 대비 국내 판매가가 높게 형성되는 이유로 세금 외에도 운송·보관료, 임대료·수수료, 판매촉진비, 유통마진 등의 유통비용을 꼽았다.

소비자원은 “중소 수입사들의 시장 참여 확대 등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주간식품저널(2월 19일)

강봉조 기자 | kbj@foodnews.co.kr

김해-부산 30분, 부산외곽순환도로 7일 완전개통



경남 김해시와 부산 기장군을 잇는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7년 2개월간의 긴 역사 끝에 개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28일 전체 구간

(48.8km) 중 노포 분기점~기장 분기점 11.5km를 우선 개통한데 이어, 오는 7일 오후 5시에 나머지 구간 37.3km를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진영분기점(김해시 진영읍)과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선) 기장분기점(기장군 일광면)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신설 노선으로, 2조 3,332억 원을 투자하였다.

개통 노선은 경남 김해와 동부산을 거의 직선에 가깝게 연결하면서 산악지형이 많고, 낙동강이 위치해 있어 전체 연장의 78.8%가 교량(82개소, 17.4km)과 터널(14개소, 21km)로 만들어졌다.

이번 개통으로 경남 김해시에서 부산 기장군까지의 주행거리는 17.2km(66.0→48.8km)로 줄어들고, 주행시간도 20분(50→30분) 가량 단축된다.

또한, 기존의 남해고속도로와 중앙고속

도로, 경부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선) 등 동남권 핵심 고속도로와 모두 이어져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교통축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남해고속도로에 집중됐던 교통량이 분산되고, 창원과 김해 산업단지와의 부산방향 등 항만 물동량 이동이 수월해져 연간 약 1,73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경남 내륙에서 동부산과 동해안 남부로 가기 위해서는 부산 도심을 통과해야만 했지만, 이번 개통으로 그동안 상습 지·정체를 겪던 부산 시내의 교통량이 외곽으로 우회, 분산돼 출퇴근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관광 성수기(해돋이, 휴가철 등)에도 교통흐름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해, 설해, 안개 등 재난에 대비하여 비탈면 경보장치(12개), 토석류 피해 방지시설(2개소), 원격조정 자동염수분사시설(12

개), 안개지역 돌발상황 감지시스템(3개)을 설치하는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2개소), 구간단속카메라(1개 구간), 터널 내 교통상황 안내·경보시스템(3개) 등을 설치했다.

특히, 국내에서 3번째로 긴 고속도로 터널인 금정산터널(7.1km)에는, 터널 화재 등 비상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24시간 CCTV로 터널내부를 확인하고 독성가스감지시스템, 물분무 설비 등 26종의 첨단 방재시설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 도심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서부경남권과 동부산권을 3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돼 지역교류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전문건설신문(2월 6일)

배봉식 기자 |applenews7@naver.com

中 재활용품 수입규제에 해운물류업계 ‘고민 가중’

일본발 폐지류 30% 급감...화주·포워더 대응 고심

자원 쓰레기 등 재활용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가 일본발 폐지류를 포함한 중국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7월 환경 부하가 큰 품목에 대해 자원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폐 플라스틱 8개 품목, 미선별 폐지 1개 품목, 섬유계 폐기물 11개 품목, 해체 금속의 일종인 바나듐슬래그 4개 품목의 4종·24품이 대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실시됐다. 환경오염 대책과 함께 폐지·가전 등 국내 재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배경에 있으며 앞으로는 고형 폐기물의 수입항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발 중국행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1~8월까지 매달 5%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세로 돌아선 주원인은 자원 쓰레기·재활용품인 것으로 보인다. 폐지류를 포함한 목재, 펄프, 폐지, 판지 등은 9~11월 매달 15만~16만t을 기록했다.

또한 플라스틱 및 제품은 1~9월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10~11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제 규제는 연말부터 도입되지만 적절한 처리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수입업자의 수입 라이선스가 갱신되지 않는 등 여름철부터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시작되면서 규제 발효에 앞선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폐지 관련이 선행하면서 페플라스틱류에서도 연말 수입 라이선스의 갱신이 대폭 감소했다.

올 들어 폐지에서는 여러 대형회사에 수입 라이선스가 순차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중일항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에서 수입량의 60~70%를 차지하지만,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서는 폐업할 움직임도 있어 대폭적인 물량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재활용 화물에 강점을 가진 어느 물류업자는 선사의 과

일 반응을 지적했다.

또한 급증하는 자원 쓰레기로 수탁하는 측의 처리능력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현지에서 컨테이너 체류가 발생하고 있다. 선사들은 라이선스 내용·유효 기간의 확인을 강화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자원 쓰레기 수입자는 일본 및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중국 외로 선별 거점을 설치하고 폐 플라스틱은 입자화하는 등 중간 원료화해 정식으로 수입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폐지·페플라스틱과 같은 재활용품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유럽 등에서도 대량으로 수입돼 왔다. 유럽·미국 등의 대량 미처리 쓰레기를 이러한 중간 거점으로 나눌 수도 있어 아시아 역내의 화물 흐름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사제공: 코리아워킹가제트(2월 19일)

외신팀 |ksg@ksg.co.kr

시멘트가격 혼란... ‘눈치 작전’ 치열

가격경쟁 ‘치킨게임’, 몰탈·모래 수급확보 혈안

성수기 돌입하면 모래·레미콘 파동 ‘불가피’ 할듯

시멘트 품목은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간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가격인하가 3년째 진행 중이다. 몰탈은 연말, 연초에 10% 인상 추진되면서 건설업계 및 유통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모래가격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레미콘 업계와 몰탈업계가 ‘모래 확보’에 혈안이 되면서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이후 파동이 불가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도권 일부 대기업 기준으로 6만 2천~3천대까지 가격이 붕괴됐다.

지방의 경우 시멘트는 벌크 톤당 가격이 6만7천원~7만 원, 수도권은 6만 4~5천원까지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시멘트 기준가 7만5천원이 결정

된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됐다.

시멘트 업계는 “봄철 성수기로 돌입할 경우 레미콘 업계가 건설업계와 가격협상을 시도할 텐데 시멘트 가격인하를 유도한 것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레미콘 업계가 불리하게 작용, 결국 실책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예전 같으면 시멘트 가격은 본사와 해당 고객사만이 알 수 있는 영업고유의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멘트 가격이 결정되면 주변 레미콘 업체들이 다 알고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서 가격인하의 폭이 더 빨라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멘트 시장이 M&A로 한일, 쌍용, 아세아, 삼표, 성신 등 5개 회사로 재편되면서 시장점유율 싸움으로 변지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0년전 ‘시멘트 1차 치킨게임’이 제2의 치킨게임으로 상황이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 대해 냉정하

게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모래확보가 어려운 몰탈업계는 가격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몰탈업계는 2017년 연간 750만톤에서 2018년에는 무려 870만톤 정도 사상최대 생산출하 실적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이후 국토부와 해수부간 힘겨루기로 인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사실상 힘들어져 모래파동이 1년 내내 이어지면서 모래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모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는 연중 유통대리점업계의 가격인상을 적용해 왔다.

이에 건설업계는 연간단가를 추진함에 따라 올해 2월부로 몰탈가격은 10%선에서 저항없이 인상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제공: 한국건설신문(2월 12일)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시설미비 사고 급증 ‘빨간불’

전체 가스사고 감소 불구 시설미비는 증가세

막음조치미비, 연결부 불량 등 위반사례 여전

사용자나 공급자의 취급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막음조치미비나 배기통 부식 등의 시설미비 사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 시설미비 관련사고는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2017년도 가스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스사고는 121건으로 전년대비 122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가스별로는 LPG가 81건으로 전년대비 75건보다 6건 증가했으며 도시가스는 29건으로 2016년과 동일, 고압가스는 18건에서 1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LPG사고가 늘어났지만, 고압가스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가스사고 발생규모도 소폭 감소한 셈이다.

사고원인별로는 취급부주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대비 41건과 비교하면 7건 감소하면서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다. 반면, 막음조치 미비나 연결부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에 따른 시설미비관련 사고는 29건에 달해,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14년 17건을 기록한 뒤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발생한 시설미비 사고를 살펴보면, 안전관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공급자와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월 충남 서천군에서는 시설기준을 위반해 세면장에 설치된 순간온수기를 사용하던 중 CO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으며 1월 경북 구미에서는 막음조치가 되지 않은 호스에서 LPG가 누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3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는 배관이 부식되면서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대전에서는 용접작업 중 아세틸렌 역화로 화재가 발생, 역화방지장치 미비로 인한 사고도 되풀이되고 있다.

부탄캔의 잘못된 보관이나 사용으로 인한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인천 강화의 한 식당에서는 사용한 뒤 뜨거워진 부탄연소기를 쌓아 놓으면서 연소기 내부에 장착된 부탄캔이 파열되는가 하면, 2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석유난로에 부탄캔을 가열,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또한 4월 경기 수원에서도 부탄캔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서 파열된 사고도 있었다.

이는 낮은 기온에서 부탄캔 사용이 원활하지 않자, 이를 가열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행동인 만큼,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LPG	86	76	84	75	81
도시가스	20	28	19	29	29
고압가스	15	16	15	18	11
합계	121	120	118	122	121
인명피해(명) (사망/부상)	17/144	13/137	18/115	12/106	9/105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원인 (단위: 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취급부주의	53	50	46	41	34
타공사	2	6	4	8	7
시설미비	23	17	22	26	29
제품노후·고장	4	14	19	12	18
고의사고	21	16	16	12	9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와함께, 가스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지난해 114명으로 전년대비 118명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 가스신문(2월 20일)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연료비연동제 도입 매번 문턱에서 좌절...이번엔 넘을까

전력 당국, 연구용역 후 모의운영 거쳐 도입 여부 결정

요금변화 시그널 통해 수요관리, 미래세대의 짐 현재 분담하는 것

국제 연료가격의 변동폭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추진된다. 전력 당국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모의운영을 거쳐 연동제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료비연동제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국민들에게 요금변화 시그널을 통해 전기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정부가 바뀔 때마다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이란 우려를 줄 수 있어 매번 도입 문턱에서 좌절됐다. 사실 ‘연료비연동제도’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에서 보면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

서울 모 대학 교수는 “연료비는 어찌 보면 발전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매요금에 따라 소매요금(전기요금)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동안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항상 왜곡돼 왔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소매요금을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면서 발전시간 발전비용을 조정하는 선에서 수익을 맞춰왔다.

소매요금이 변해야 소비자들이 요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데 국제유가의 변동과 상관없이 소매요금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다 보니 연료비변동 요인이 발생해도 가격신호 기능이 미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문제는 연료가격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을 발생시켜 비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에너지소비를 위해서라도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연료비연동제는 몇 개월 동안의 평균연료가격을 분석해 연료비조정단가를 결정, 1~2개월 후에 적용한다는 개

념으로 매월 연료비 변동폭만큼 요금수준이 변한다.

연간 전체적인 변동폭은 그리 크지 않다.

연료비연동제도 도입 본격 논의 2009년부터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이 본격 논의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다. 2008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한전은 당시 수 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2009년 6월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 회의에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하고,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논의된 것이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이다. 이후 2010년 1월부터 모의 적용한 후 2011년 6월부터는 실제 요금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2010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이 거론됐다. 전기요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던 재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함께 가스·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연료비연동제 도입은 이미 결정된 상태며, 가스는 2010년 3월, 전기는 2011년부터 연동제를 추진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당시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두고 지경부는 한전 경영압박 해소와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위해 최대한 앞장기자는 입장인 반면, 재정부는 물가인상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2010년 말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전의 깊어지는 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공식화했다.

최 장관은 “연료비연동제, 전압별요금제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합리적·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판매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연료비연동제는 2011년 중에 실시하며 연료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일반용·교육용·산업용을 통합해 전압별요금제로 전환할 계획도 언급했다.

물가상승 이유로 2011년 도입 문턱에서 좌절

하지만 그해 6월 새로 부임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7월 실시 예정이던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는 일단 적어도 한 달간 시행을 늦추고 또 전기요금 인상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4%) 이내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을 이유로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이 미뤄진 것이다.

이후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업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논의만 무성할 뿐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없다고 말했지만,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정책비용들은 보존이 필요하다”며 “요금인상이 없다는 방침에 얽매어 손실에 달하는 비용을 고스란히 한전에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연료비연동제도 도입은 미래세대에게 짊어지게 할 짐을 현재에 반영하는 것이며,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해선 연동제를 통해 가격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전기신문(2월 23일)

유희덕 기자 |yuhd@electimes.com

“단단한 지면과 강한 바람”, 동절기 골프장 안전사고 주의보

동절기 타구·관련사고 잦아, 카트 낙상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카트 사고 등 골프장 안전사고 주의보가 내려졌다.

국내 골프장은 산악지형에 조성된 곳이 많다. 때문에 급경사나 급커브길이 많다. 특히 동절기에는 카트의 추락이나 카트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몇 년전만해도 4명이 플레이하다 카트가 연못에 추락해 전치 8개월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뉴스를 탔다. 또한 혼자 카트를 운전하며 빈 카트를 피하러다 연못에 빠져 익사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코스에서는 타구사고도 빈번하다. 동반자에게 맞을 수도 있고 뒷 조나 코스 형태에 따라 옆 홀에서 넘어오는 볼



을 맞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바람이 강하고 지면이 단단한 동절기에는 타구 관련 사고가 더욱 흔하다. 타구사고 발생 시 1차 책임은 물론 볼을 친 사람에게 있다. 아무리 캐디가 팬찮다고 해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골프장의 책임도 있다. 앞 팀이 보이지 않는 능선

이나 도그렉홀에서는 반드시 포어캐디나 카메라를 비치해야 한다.

동절기에는 미끄러지는 사고도 흔히 발생한다. 라운드 후 클럽하우스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골프장의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골퍼 스스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

요즘에는 골프장마다 도난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골프백이나 보스턴백을 바꾸거나 차량 내 소지품을 훔치는 경우다. 여성골퍼의 고급 보스턴백에는 고가품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갑이나 고가의 시계 등 귀중품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상책이다.

기사제공: 레저신문(2월 9일)

정찬필 기자 lgvd23@naver.com

문화계에서도 이어지는 미투운동, 남정숙 교수 문화계 미투운동 참여 독려

6여 년 동안 상사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가해자는 교수직 유지, 피해자는 해고조치

지난 29일 JTBC의 서지현 검사 인터뷰를 기점으로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Me too · 성폭력 피해 고발)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문화계에서도 남정숙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교수의 동참이 이어졌다.

남 교수는 예술경영분야에서 뼈대가 굵은 전문가였다. 35년 동안 지역 축제와 문화콘텐츠개발에 앞장서며 여러 성과를 남겼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문화와 마케팅을 국내에서 최초로 접목시킨 1세대 문화정책 기획자로 활동하던 남 교수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4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 설립을 위해 성균관대 학교에 초빙되었다. 4차 산업이 부상함에 따라 문화계에서도 변화가 촉구됐고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남 전 교수는 문화융합대학원 핵심 설립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남정숙 교수를 가해자인 이경현 교수가 성추행을 시작한 것은 2011년 봉평MT였다. 이 교수는 술자리에서 키스를 시도하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후 6~7년 동안 직간접적인 성추행이 교묘하게 지속되었다.

특히 2014년 봄 MT에서는 어둠을 틈타서 남정숙 교수 외 다른 여교수에게도 대담하게 학생들 앞에서 성추행을

시도해서 학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이를 문제삼은 학생들이 투서하면서 남교수 건도 같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학교 측은 가해자인 이 교수 편에서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고 도움을 요청했던 학교 재단과 단체들은 외면했다. 학교 측은 남 교수에게 ‘성추행’ 문제 회의 내용을 녹취해서 ‘학교 명예훼손과 교수로서 품위유지를 위반’을 이유로 6개월 뒤, 계약 연장 부적격이라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조직의 폭력성 앞에 전문가 여성일 지라도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내쳐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문화가 아닌 개별 여성에게 전가하면서 해결하려는 권위주의 문화의 잔재 때문이다. 사건은 남 교수가 이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이어졌고 공방 끝에 승소하여 지난 1월 30일 민사 재판부는 이 교수는 남 교수에게 7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비록 1심에서 결정해주신 700만원은 작은 금액일 수 있으나 여성인권의 역사에서는 의미 있는 씨종자돈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이 교수는 직위해제만 뒀을 뿐 현재도 교수 직위를 유지하며 교단에 서고 있다. 반면 피해자 남 교수는 명예와 직장 등 모두를 잃었다.

문화분야는 특히 객관적으로 증명이나 증빙할 수 없는 분야이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예술가 스스로가 성폭력을 당해도 폭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계에서도 자정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정숙 교수의 용기로 교육계와 문화계에서 자행되어 온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제 문화계의 성폭력 역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폭력임을 인식해야 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사제공: 서울문화투데이(2월 8일)

이은영 편집국장, 정상원 인턴 기자 |press@sctoday.co.kr

국민모임 “전교조 무자격교장공모 설문 불법 의혹” 고발

13일 서울서부지검서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제출

‘교사 휴대전화 번호 불법입수’ 등 수사 요청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국민모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최근 진행한 무자격공모교장 관련 설문조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불법으로 입수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교조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소속 교사가 아닌 교사들을 상대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번호를 입수하고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전교조 소속 이외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전교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유·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2158명(전교조 소속은 22.5%)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무자격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모임은 발표내용에 교사들의 설문 응답률이 빠져 있는 점, 그리고 전교조 외 78%에 달하는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전체 모집단 교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제71조 등 관련법에 위배될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또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알고도 정보를 넘겨받았다면 징역5년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모임은 또 이날 고발장에서 “전교조의 설문조사에는 1인이 여러 번 설문할 수 있도록 돼있고,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가 담긴 USB메모리를 고발장에 동봉했다.

이 대표는 고발장 제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설문조사가 목적을 위해 악용된다면 여론 형성이 아닌 조작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기사제공: 한국교육신문(2월 13일)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유명 디렉터들 소속사와 잇단 결별...향후 행보 '주목'

7년 전부터 중대형사들 디자이너 브랜드 인수 증가

유통 채널 다각화되며 자체 브랜드 사업 뛰어들어

연 초부터 유명 CD(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거취를 옮긴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 내 꽤나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중대형사에 소속돼 있다가 최근 회사를 옮기거나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늘었다.

핸드백 ‘쿠론’을 런칭하며 해당 업계 대표 CD에 오른 석정혜 씨가 대표적인 케이스. 그는 2009년 코오롱FnC에 브랜드를 매각하면서 CD로 합류했다. ‘쿠론’의 연매출이 600억원 고지를 넘어선 후 코오롱을 떠나 2016년 신세계인터내셔널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시한번 화제가 된 바 있다. 1년여 간 신규 핸드백 브랜드 런칭을 준비했지만 무산되면서 퇴사했다.

석 CD는 올 초 순 자기 자본으로 제 2의 ‘쿠론’을 만들기로 하고 ‘분크(Vunque)’를 런칭 했다. 온라인이 중심 채널로, 종전 보다 가성비에 포커싱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근 핸드백 업체와 협업 제안도 이어지고 있어 콜라보레이션 작업도 활발하게 펼칠 전망이다.

디자이너 슈즈 ‘지니킴’을 런칭한 김효진(영어명 지니

킴)도 지난해 위즈워드, 더블유컨셉으로 잘 알려진 아이에스이커스의 계열사인 커먼웰스와 최종 결별했다.

김효진 CD는 GSB홀딩스와 커먼웰스 합병 과정에서 퇴사를 결정했다. 10년간의 파트너십이 종결 된 후 김효진 CD 역시 자신의 제 2의 브랜드 런칭 작업에 착수했다. 김 CD는 디자이너 슈즈 ‘소피아 그레이스’를 런칭하며 플래그십 스토어와 백화점, 온라인으로 전개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런칭을 추진 중이다.

젠틀몬스터 아트디렉터로 지명도를 높인 최도진씨는 본업을 살릴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그룹인 쇼메이커스와 패션 사업을 위한 코드먼트를 설립했다. 쇼메이커스는 디뮤지엄 ‘플라스틱 판타스틱’ 전시, 이니스프리 공간 디자인을 맡았고 패션사업은 시계 ‘코드먼트’를 온라인 채널에 런칭했다.

지난해 말 한상혁 CD는 삼성에버랜드패션부문(구 제일모직) ‘엠비오’에 이어 구 SK네트웍스 ‘다케이앤와이 맨’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다가 2016년 말 그만두었고 최근 에프앤에프 ‘MLB’로 자리를 옮겼다. 에프앤에프가 ‘MLB’의 아시아 9개국 사업권을 따 내면서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한 CD를 영입한 것이다.

향후 ‘MLB’의 변신이 주목되는 이유다.

변화가 예고되는 CD도 있다.

신원 ‘반하트 디 알바자’의 정두영 CD는 신원과 결별해 다음을 준비 중이다. 코오롱이 인수한 여성복 ‘자텔드 슈에프’의 김재현 CD도 지난해 말 코오롱을 나왔다.

또 ‘이카트리나뉴욕’, ‘H 바이 이카트리나뉴욕’을 런칭하며 20여 년 동안 핸드백 디자이너로 활동 해 온 캐시리는 종전 카넬리온에서 독립해 코웰패션과 손을 잡았다. 합작 법인인 CF인터내셔널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아 이달 초 신규 ‘242에이치 바이 이카트리나뉴욕(H by Ekatrina New York)’을 런칭했다.

7년여 전 부터 패션 중대형사들의 디자이너 브랜드 M&A가 급격히 증가했다. 인수 초반에는 디자이너의 감성을 이어 가기 위해 CD를 합류시켜 브랜드 빌딩을 이어가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 브랜드도 디자이너도 독자 노선 형태로 분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홈쇼핑, 온라인 유통사들이 브랜드 파워를 위해 디자이너와 협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늘면서 CD의 거취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사에 인수돼 여전히 CD로 건재한 경우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준지’의 정욱준, 코오롱FnC ‘슈콤마보니’의 이보현 CD 등이 있다.

기사제공: 어패럴뉴스(2월 19일)

박해영 기 자 |envy007@apparelnews.co.kr

국내 기술진, 혈당측정 콘택트 개발

울산과기원·성균관대 연구진, 눈물 속 포도당 감지하며 혈당 전기 신호로...

국내에서 눈물 속의 포도당을 감지해 혈당을 측정하는 ‘무선 스마트 콘택트렌즈’가 개발됐다.

지난달 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신소재공학부 박장웅 교수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변영재 교수,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정현 교수 등이 포도당을 감지해내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콘택트렌즈는 눈물 속 성분인 포도당을 감지하는 센서와 혈당의 정상 수치 여부를 나타내는 LED(발광다이오드)를 부착, 포도당 센서가 포도당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신호를 감지해 혈당이 정상 수준일 때는 LED가 켜지고, 혈당이 정상보다 높으면 꺼지도록

설계되었다.

연구진은 스마트 콘택트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평범한 소프트 렌즈를 기판으로 사용했다. 혈당 측정과 표시에 필요한 소자가 렌즈 하나에 모두 들어가 다른 장치 없이도 간단하게 당뇨병을 진단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또 연구진은 콘택트렌즈가 작동했을 때 열의 발생으로 사람이 착용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토끼에 착용시켜 혈당을 측정한 결과, 토끼가 렌즈 착용에 거부감 없이 포도당 농도측정이 정상적으로 체크됨을 확인했다.

선진국 병으로 알려진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대사성 질환으로 국내에 최소

3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당뇨병자는 주기적으로 피를 채혈해 혈당을 확인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때 환자들이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당뇨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콘택트렌즈를 이용해 당뇨병 진단하려는 연구에 착수한 회사는 구글과 소니 등이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눈에 착용하는 미래형 콘택트렌즈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이번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미래형 콘택트렌즈 개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사제공: 옵틱위클리(2월 19일)

김보라 기 자 |webmaster@opticweekly.com

효성, 인도에 1억불짜리 첫 스판덱스 공장 건립

조현준 회장 직접 나서 글로벌 전략 행보

효성이 인도에 첫 번째 스판덱스 공장을 짓는다. 효성 조현준 회장은 지난 18일 인도 뭄바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만나 2019년까지 마하라슈트라주(州)에 스판덱스 공장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조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효성이 신설 공장을 세우게 된 만큼 앞으로도 효성과 인도 경제가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효성 투자로 인도의 미래 경쟁력과 산업 기반이 확고히 다져질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 투자가 이어지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효성은 ‘100년 효성’의 전략적 기반으로 베트남과 더불어 인도를 선택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은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스

판덱스, 타이어코드 등 핵심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전초 기지로 육성하고 인도는 지속적인 신·증설로 인도 내수 시장 공략의 첨병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인도의 효성 스판덱스 공장은 우선 1차로 1억불이 투입된다. 마하라슈트라주의 산업도시인 아우랑가바드시(市) 인근의 아우릭 공단에 약 12만평(40ha) 규모의 부지를 마련하고 2019년까지 공장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수요와 성장 전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인도 스판덱스 시장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고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연평균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시장 규모만 2억 달러로 전망된다. 효성이 공장을 건립하는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 섬유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효성 스판덱스 ‘크레오라’는 인도 시장의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브랜드다. 주로 히잡 등 무슬림웨어·란

제리·스포츠웨어·데님·기저귀용 스판덱스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효성은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20년에는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시장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늘리는 등 고수익을 창출하는 시장지배자적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인도는 이번 효성 공장 신설로 제직·편직·염가공·봉제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지역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 확대가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조 회장은 산업용 섬유, 중공업 등 사업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회장은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효성 신사업의 시장 진입을 위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규제완화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기사제공: 한국섬유신문(2월 20일)

정기창 기 자 |kcjung100@ktnews.com

■기자를 위한 신문 언어 길잡이

영어(囹圄)의 몸 → 옥에 갇힌 몸

‘영어(囹圄)’는 ‘감옥(監獄)’과 같은 말인데 어렵고 낯선 한자어이다. ‘영어의몸’이란 ‘감옥에 갇힌 몸’을 뜻하므로 이 뜻을 살려서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신문 기사 사례	바로잡기
전 대표는 1999년 커뮤니티사이트 프리챌을 설립해 회원 1000만 명을 확보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던 벤처 사업가 출신. 하지만 당시 유로화 정책의 부진 등 악재가 겹치면서 거액의 부채가 발생, 한때 영어의 몸이 되기도 했다.	감옥에 갇히기도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나기도 했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영어의 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감옥에 갇히면서
굳이 종편 허가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씨는 방송과 통신을 마음껏 주물렀다. 파이씨티 인 허가 비리 건으로 영어의 몸이 됐으나 그를 둘러싼 여러 다른 불미스러운 설들은 여전히 난무하는 상황이다.	감옥에 갇혔으나

(국립국어원 제공)

회원사 원고모집

- ◆ 원고내용 : 형식 및 소재에 제한 없음 (보도자료, 발행인 동정, 회원사 미담사례, 특종 기사 소개, 칼럼, 시, 수필 등)
- ◆ 대상 :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 ◆ 접수방법 : 웹하드 (www.webhard.co.kr 아이디 kosna, 비밀번호 kosna) [GUEST] 폴더 내 등록 메일 kosna92@naver.com 이진숙 기자
- ◆ 문의 : ☎ 02-334-7251~2

한국전문신문협회 동호회

전문언론인의 친목·단합과 교류·소통을 위한 한국전문신문협회 동호회(산우회·골프동우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334-7251 최준우 사무차장

책자 발간

기독교연합신문

‘언론선교 30년사’ 발간

기독교연합신문(발행인 장종현)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1988년 창간부터 지금까지 신문사가 걸어온 길을 엮은 ‘언론선교 30년사’를 발간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창간된 신문은 민주화 물결과 함께 자유에 대한 함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던 시기였다. 하지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는 그리 많지 않아 신문에 대한 구독의 지가 높던 당시 10만부 발행과 가판대 판매로 한국교회는 물론 세상에 이름을 알린 기독교연합신문이 30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뉴미디어시대를 여어난 기록이 담겨져 있다.

지난 2002년과 2014년 총회 결의에 이어 2015년 교단 총회에서 직영신문으로 결의하면서 초교파지에서 교단지로 변화하는 과정도 30년사에 담아냈다.

문의 ☎02-585-2751



약업신문

Pharmaceuticals in korea 2018 발간

약업신문(발행인 함용헌)에서 한 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인 ‘Pharmaceuticals in korea 2018’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서는 투자정보/구직 정보/기업홍보를 필요로 모든 비즈니스 니즈에 대해 원스톱서비스 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DB화 했다.

더불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제약기업들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제시, 21C 글로벌시장 향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과 개별기업에 관한 정보를 외국의 모든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산업 현황과 한국의 제약기업에 대한 정보를 주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코스피상장사 코스닥등록사, 비상장사 등 3분류체제를 갖추고 있다.

책의 구성은 △기업정보 (회사소개 및 주요연혁, 영업소 및 공장현황, 사업목적) △경영정보 (주요주주현황, 경영진구성, 주요제품매출현황, 생산실적, 연구개발현황) △재무정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으로 게재했다.

가격: 60,000원

문의 ☎02-3270-0114



■ 발행인 칼럼 | 국토매일 백용태 발행인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절실



백용태 발행인

정권이 바뀌면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매번 시험을 하고 있다.

인천송도 낚싯배 사고,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또 어디로 이어질까. 곳곳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뼈아픈 교훈을 겪었음에도 국민들은 각종 안전사고에 불안해 하고 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 안전한 구조활동, 안전매뉴얼 이행을 이론상으로 다 알고 있어도 실행력이 없어 안전불감증이 만연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기온 급강하에 따른 각종 동파로 인하여 많은곳에서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스프링클러가 강추위에 얼어 동파에 대한 화재 발생 시에는 속수무책이다. 또 많은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강추위가 끝나고 해동이 되는 시점에서야 동파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선 관련 부서에서 철저한 점검과 예방이 필요하며 정부와 시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지하철에 시설설비 보강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최근 국가안전대진단하면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와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대형재난을 미리 막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시작됐다. 해마다 50여 일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전국 시설물 20만~40만 곳을 진단한다.

이번 대진단에서도 정부는 50여일 동안 전국의 시설물 29만곳을 점검한다고 예고했다. 날마다 전국에 5370곳을 진단해야 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과거 대진단과 마찬가지로 육안 점검이나 건축주의 자체 점검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전대진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동원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자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퇴직한 전문가들이나 민간 전문가를 대진단에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지식, 수박 겉핥기식의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내실 있는 진단을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을 높이고 대진단의 기간도 크게 늘려 제대로 된 대진단을 해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치유하는 진정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25th Since 1992

同行

함께 합니다!

1992년 설립 이후 “고객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자”라는 경영목표로 반세기 전문신문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옴니피앤디|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38-4
TEL : 02)702-0904~5 FAX : 02)702-0906



회원사 이전

◆국세신문

*주소: 0404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3안길46 국세신문 빌딩

*대표번호: 02-323-4145

◆주간불교신문

*주소: 0796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나길 80

*대표번호: 02-734-0777



회원사 동정

가스신문

GAS KOREA 2018 개최 안내

가스신문(발행인 양영근)이 '제11회 서울국제가스&FC산업전(GAS KOREA 2018)'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오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다. 부대행사로 △가스 산업 및 수소연료전지 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신제품 설명회 및 가스용품 시연회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839-4000

국토매일

영화 '미쳐버린 도시' 홍보 MOU



국토매일(발행인 백용태)가 국민모금으로 만드는 영화 '미쳐버린 도시' 홍보를 후원한다. 백용태 발

행인과 장태령 영화감독은케이엠스타엔터테인먼트 회의실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하며 영화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영화 '미쳐버린 도시'는 부패와 복지부동이 만연한 한국 공무원 사회에 이롭없는 한 하급공무원이 청탁에 굴하지 않고 청렴함과 도덕성을 지켜나가는 이야기다.

농촌여성신문

설맞이 직거래 장터 개최



농촌여성신문(발행인 김인련)을 발행하는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에서 설을 맞아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수원사업장과 화성사업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제수용품, 전통가공식품, 과일 등 100여종의 농수축산 식품과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유통브랜드인 '농맘'에 선정한 제품들을 전시·판매했다.

밀고신문

진각종·성북구·동덕여대 MOU



밀고신문(발행인 회성 정사)을 발행하는 대한불교 진각종에서 성북구, 동덕여대와 민·관·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김영배 성북구청장, 동덕여자대학교 김낙훈 총장,

천찬영 월곡1동 주민자치위원장, 백준현 월곡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학 협력 구축을 통한 교류증진으로 새로운 가치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병원신문

제8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후보자 공모

대한병원협회·병원신문(발행인 홍정용)과 종근당이 공동으로 제정, 시상하는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의 제8회 수상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이번 시상식 부문은 △CEO △병원인으로 접수기한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더불어 서류는 CEO 부문의 경우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및 해당 시·도 병원회이며, 병원인 부문은 병원신문(yjw@kha.or.kr / 원본: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3층 병원신문 윤종원 양)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705-9266

市政新聞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부총재 취임

시정신문 주동담 발행인(사진)이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부총재로 취임했다.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총재 이취임식을 열고 제2기 총재로 유용근 LAKU 운영위원장을 추대했다.

주동담 부총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만큼 통일이 이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올 것 같다. 언론인으로서 올바른 뉴스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올



바른 가치관을 심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땀 흘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돈타임스

2018년 양돈통계 총람 무료 배포

양돈타임스(발행인 김오환)은 '2018 양돈통계 총람'을 제작하여 851호 신문과 함께 무료로 발송했다.

구독료 환원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한 통계 총람에는 양돈농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양돈 관련 통계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국내 양돈 수급 통계, 해외 주요 국가의 통계 자료 등 양돈 통계들만 모아 수록했다.

전기신문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설명회 개최

전기신문(발행인 이형주)에서 주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LED조명 보급계획과 중장기 설치계획 등을 소개하는 '2018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9일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접수는 전기신문 홈페이지(선착순 150명)에서 받고 있다.

문의 ☎02-2168-1361

한국섬유신문

2018년 한국 패션브랜드 대상 시상식

한국섬유신문(회장 김시중)에서 '2018년 한국 패션브랜드 대상' 후보자로 접수받는다.

이번 시상식은 우수 브랜드 발굴 및 육성 취지에 따라 진행하며 시상 부문은 △남성복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캐주얼 등이다. 신청서류는 브랜드대상 신청서(소정양식), 공로부문 신청서(개인용), 공로부문 추천서(개인용), 공적조서, 브랜드 관련기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의 경우)이다.

접수는 오는 3월 9일까지이며, 시상식은 3월 19일 오후 3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2-326-3600

한국해운신문

제23회 바다의날 마라톤대회

한국해운신문(발행인 이철원)과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에서 오는 5월 26일 '제23회 바다의날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여의도 너른들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Full, Half, 10Km, 5Km까지 총 4개의 종목으로 진행한다.

문의 ☎031-821-9902

전문신문협회보

1989년 5월 1일 창간
www.kosna.or.kr

韓國專門新聞協會 會員社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이 컷은 본 협회 회원사임을 나타내는 표시

회장·발행인 이덕수 명예회장·편집인 김시중

부회장 김명호·김찬근·방재홍·이한구 | 감사 양기방·이관치
이사 강대일·김관홍·김인련·김홍기·문귀례 | 고문 한기호·함용현
·박연준·백용태·심수지·오경섭·유태우
·정재원·정태호·조경옥·주동담

07217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당산동4가) 당산 SK V1 센터 E동 407호
대표전화 (02)334-7251 팩스 (02)334-7279
구독신청·광고문의 (02)334-7252 메일 kosna92@naver.com

발행처 한국전문신문협회 | 인쇄처 (주)옵니퍼앤디·제일CTS



3월 창간기념일을 축하합니다

3월 1일(2002년) 한국의약통신 메디컬저널

3월 1일(2002년) 한국의약통신 파마시저널

3월 5일(2009년) 더킨더타임즈

3월 7일(2016년) 영농자재신문

3월 8일(1988년) 세무사신문

3월 10일(1999년) 주간신문CMN

3월 15일(1999년)

3월 21일(1967년)

3월 22일(1990년)

3월 25일(1976년)

3월 25일(1988년)

3월 29일(1954년)

버섯정보신문

의협신문

레저신문

대한교육신문

약사신문

약업신문

Since 1989

빠른정보 바른신문

모든 가스정보가 이곳에



가스정보의 보고, 인터넷가스신문

gasnews.com

1999년 5월 4일 개동



에너지업계 최초의 일일속보

1997년 10월 창간 : 이메일 뉴스레터

29년 전통의 가스전문지

1989년 5월 창간 : 대판 16~64면 발행

GAS KOREA 2018

제11회 서울국제가스전시회(GAS KOREA 2018)에 전문언론인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주시면 기념품, 중식제공 및 각종 취재·관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제11회 서울국제가스&FC산업전

2018.3.21~3.23, SE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 3호선 학여울역]

|주관| (주)한국가스신문사



한국가스신문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19, 603호(구로동)
TEL:(02)839-4000(대) FAX:(02)2109-8822